

진안고원 명품 수박 첫 출하

일교차 크고 일조량 풍부한 해발 350m 준고랭지서 재배돼 당도 높고 단단한 과육 인기

최고의 품질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고원 명품 수박이 첫 출하를 시작한다.

지난 4~5월 식재된 진안지역 수박은 7월 둘째 주 하우스 수박 출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비가림 터널재배 수박이 본격적인 성 출하기를 맞는다.



최고의 품질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고원 명품 수박이 첫 출하를 시작한다.

(대표 최종진, 이하 진안조공) 통합마케팅 사업으로 수박 약 3,800톤(168농가, 103ha)이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을 통해 출하될 계획이다.

진안고원 수박은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쿠

광, 도매시장,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된다.

최종진 진안조공 대표는 "본격적인 출하에 앞서 철저한 포진관리를 통해 고품질 수박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출하 농가 모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아 안전하고 맛도 좋은 진안 수박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진안 수박은 맛과 당도가 탁월해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정을 받으며 관내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 대표 농특산물인 수박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여름철 식중독 예방 집중점검 나서

무주군, 집단 급식소·식재료 납품업체 등 34곳 방문 점검

무주군이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위생관리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학교 등 집단 급식소와 식재료 판매업소 등 34곳을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 임지혜 팀장은 "이번 점검은 이상고온과 장마 등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실효성 있는 점검은 물론, 환경개선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도와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를 비롯해 △조리기구 세척·살균 관리 여부, △집단 급식소 신고 시설의 보존성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 업체 운송 차량의 온도 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무주군은 점검 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는 물론,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수칙 교육·홍보 등을 병행해 식품 안전 확보는 물론, 군민건강까지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점검 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는 물론,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사과·포도·복숭아 품목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반딧불 사과와 포도, 복숭아의 고장 무주가 해당 품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온과 폭염에 대비한 기술 지도가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탄저병 등 병해충 예방을 비롯한 방제 지도에도 주력하고 있다.

활동은 9월 수확 시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원단은 농촌진흥청(이하 진흥청) 관계자와 무주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 담당 지도사 등 6조 25명으로 구성됐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해마다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 양상이 커짐에 따라 과수재배 농가의 우려는 물론,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충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주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을 둔 품목별 전문 지도를 진행해 생산 안정을 꾀하는 한편, 맛과 품질 향상에도 적극 힘써 무주반딧불사과·포도·복숭아의 명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우려되는 피해를 비롯해



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사과(1,233농가, 793ha)와 포도(293농가, 87ha), 복숭아(334농가, 122ha)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농작물의 24% 정도로 규모나 명성, 연매출(650여억 원) 측면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5일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 개장을 맞아 누리파크를 방문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

최훈식 장수군수,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5일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 개장을 맞아 누리파크를 방문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 모두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날 최 군수는 물놀이 시설 설치 상태, 위험 요소 등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통해 군민 및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발물놀이장은 지난 5일 개장해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규 휴무일이다. 기상악화 시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6시 40분까지로, 매일 총 3회 회차별(1회차 10:00~11:40 / 2회차 13:00~14:40 / 3회차 15:00~16:40)로 운영된다. 이용인원은 회차별 150명으로 제한되며 관내 50명, 관외 100명으로 구분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12세 이하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은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개장 첫 주 말에는 약 1,600명의 관광객이 누리파크에 방문했다.

단, 올해부터 발물놀이장은 화재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이용일 기준 7일 전부터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올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해 많은 이용객들이 장수누리파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겠다"며 "군민 모두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올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해 많은 이용객들이 장수누리파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겠다"며 "군민 모두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여름철 국가유산분야 합동안전점검 추진

진안군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여름철 국가유산분야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우기를 맞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함으로써 국가 유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름철 호우·태풍으로 인해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 시설이 이번 점검대상이며, 진안군은 마이산, 진안향교 대상전, 천황사 대웅전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장 균열 및 지붕 기와 이탈 상태, 석축 배부름, 국가유산 누수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은 문화 유산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라며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앞으로도 각종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유산 보수 정비 사업 현장의 안전 여부와 국가유산 및 주변 배수체계와 배수시설의 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했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